

회의문자①



濫

넘칠 람:

濫자는 '넘치다'나 '퍼지다', '탐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濫자는 水(물 수)자와 監(볼 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監자는 물이 담긴 대야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대야를 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監자에 水자를 결합한 濫자는 물이 넘치는지를 살펴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로 정도가 과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남발(濫發)하다'라고 하면 말이나 행동 따위를 함부로 하는 것을 뜻하고 '남용(濫用)하다'는 기준을 넘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濫

소전

濫

해서

회의문자①



掠

노략질할
략

掠자는 '노략질하다'나 '탈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掠자는 手(손 수)자와 京(서울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京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서울'이나 '도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掠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手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그런데 '노략질하다'라는 뜻에 京자가 쓰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경→략'으로의 발음 차이도 크기 때문에 발음요소로도 보인진 않는다. 다만 京자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읍'을 뜻하니 노략질의 대상을 표현한 것으로만 추측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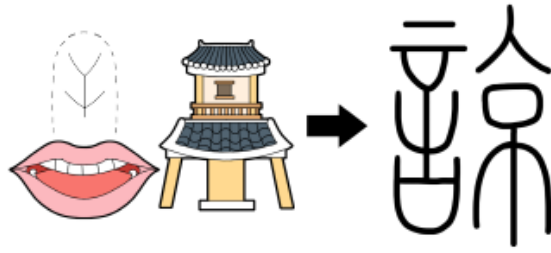
掠

소전

掠

해서

회의문자①



諒

살펴알/
믿을 량

諒자는 '믿다'나 '참으로', '살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살피다'라는 것은 남의 '(기분을)살펴서 알다'를 뜻한다. 諒자는 言(말씀 언)자와 京(서울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京자는 높은 건물을 그린 것으로 '높다'나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크다'라는 뜻을 가진 京자에 言자가 결합한 諒자는 '말(言)을 크게(京)믿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諒자는 본래 '믿다'나 '진심'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양해를 구하다'나 '살피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더는 쓰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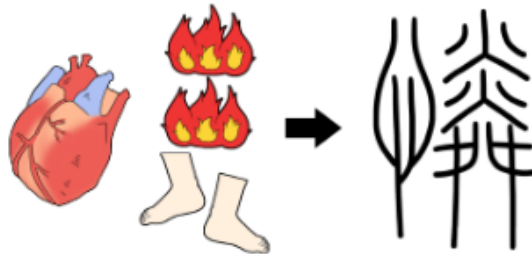
諒

소전

諒

해서

회의문자①



憐

불쌍하여
길 런

憐자는 '불쌍히 여기다'나 '가엾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憐자는 心(마음 심)자와 爇(도깨비불 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爇자는 '도깨비불'을 표현한 글자이다. 사실 도깨비불은 화학 원소의 하나인 '인'을 뜻한다. 예전에는 어두운 밤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여 이것을 도깨비불이라 했다. 憐자는 이렇게 도깨비불을 뜻하는 爇자에 心자를 결합한 것으로 가엾고 측은한 사람의 영혼을 금세라도 사라질 것만 같은 도깨비불에 비유한 글자이다.

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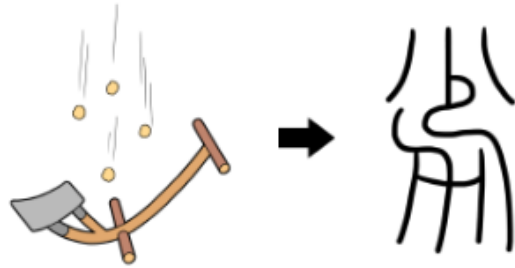
소전

憐

해서

3
-
65

회의문자①



劣

못할 렌

劣자는 '못하다'나 '줄렬하다', '(수준이)낮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劣자는 少(적을 소)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劣자는 남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다. 그러니 劣자는 '힘이(力) 적다(少)'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금의 劣자는 힘이 모자라 남에게 뒤처진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어리석다'나 '줄렬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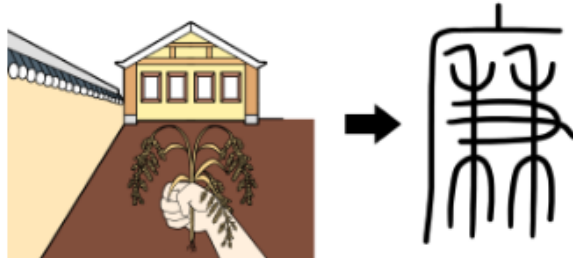
소전

劣

해서

3
-
66

형성문자①



廉

청렴할
렴

廉자는 '청렴하다'나 '검소하다', '결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廉자는 广(집 엄)자와 兼(검할 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兼자는 손에 버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렴→검'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廉자는 본래 집안의 '모퉁이'나 '구석'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에 비유되면서 '모나다'나 '원만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廉자는 후에 모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자기 소신대로 사는 사람에 비유하면서 '청렴하다'나 '검소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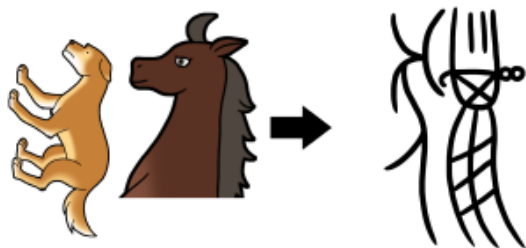
소전

廉

해서

3
-
67

회의문자①



獵

사냥 렵

獵자는 '사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獵자는 犬(개 견)자와 獵(목 갈기 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獵자는 사자나 말의 목 갈기를 그린 것이다. 獵자는 '사냥'을 뜻하기 위해 犬자와 獵자를 응용해 만든 글자이다. 고대부터 개는 사냥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데는 개만큼 뛰어난 가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말의 갈기가 그려진 獵자까지 더해져 있으니 獵자는 마차 말을 타고 개와 함께 사냥감을 쫓아가는 모습과도 같다. 獵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이다.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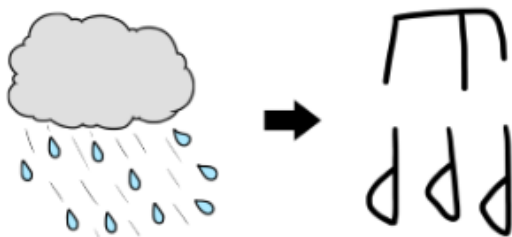
소전



해서

3
-
68

형성문자①



零

떨어질/
영[數字]
령

零자는 '떨어지다'나 '비 오다', '없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零자는 雨(비 우)자와 令(하 여금 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令자는 '명령'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갑골문에서는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𩇛 모습만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전에서는 令자가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零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零자는 본래 '비가 오다'나 '(비가)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지만, 지금은 영상(零上)이나 영하(零下)처럼 0°C를 기준으로 말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갑골문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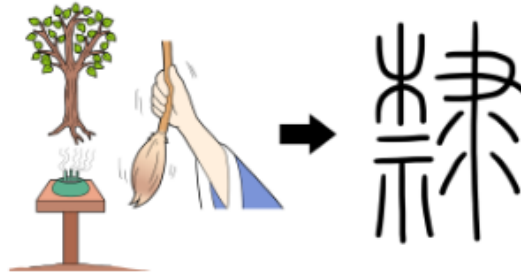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隸

종례:

隸자는 '종'이나 '불다', '종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隸자는 隶(미치다 이)자와 隸(능금 나무 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능금나무'란 '사과나무'를 말한다. 능금을 중국에서는 임금(林檎)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능금'이라 불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능금나무 열매는 제사 때 올리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고대에는 특별히 관리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특별한 과일나무를 뜻하는 隸자에 隶자가 더해진 隸자는 능금나무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노예를 뜻했었다. 隸자에 '불다'나 '종속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사실은 이들이 능금나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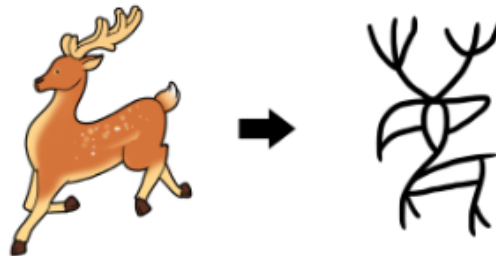
隸

소전

隸

해서

상형문자①



鹿

사슴 록

鹿자는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鹿자는 뿔이 긴 수사슴을 그린 것이다. 사슴은 네발 달린 짐승 중에서는 유일하게 십장생(十長生)에 포함될 정도로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중국을 상징하는 용의 뿔도 사슴의 뿔로 표현하고 있을 만큼 사슴은 신비로운 짐승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래서 鹿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대부분이 상서롭거나 길하다는 뜻을 전달하게 된다.

鹿

갑골문

鹿

금문

鹿

소전

鹿

해서